

준비서면

사건번호 2024가합103040

사건명 위자료

원고 김 석

피고 구동명 외 2명

원고는 석명명령에 따라, 본건의 핵심 쟁점과 그에 대한 증거 구조를 다음과 같이 종합하여 제출합니다.

가. 이 사건 원인이 된 쟁점

본건은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일반적 법률상담의 범주를 넘는지 여부가 아니라, 구체적 발언·광고·영상·개별상담·행위가 결합된 '**구조적 교사 행위**'가 존재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 원인이 된 쟁점은 다음 9가지입니다.

1. 피고 1, 3이

“전세계에서 맹인한테만 마사지하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헌행법상 어찌 됐건 위법이다. 네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검찰까지 올라가는 게 맞다”

“우리가 자유롭게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야, 의료법에 있는 맹인 독점조 항, 이거 위헌이야 이렇게 판결해주면 이거 없어져버립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지금 무죄였기 때문에 2021년 위헌 결정될 가능성도 아주 높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과가 날 때까지 대법원까지 가서 다투라고 **권하고 있다**”

“이거 맹인들만 할 수 있게 하는 거 알고 전에도 우리 재판해봐서 알고 협회에서도 교육받아서 압니다. **내일 나가가지고 다 인정하는 진술할 겁니다.** 오늘 막 손님 있고 하니까 오늘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아주 토라이(**갑3, 29:55경, 원문인용**) 아니면은 경찰도 다 돌아갑니다.”

“6, 7년 전에 그것도 제가 담당한 사건이었는데 **대법원에서 마사지는**

포괄일죄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따라서 포괄일죄 이거는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날 때까지 추가 연속돼서 여기 다 들어가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주면 알아듣는 경찰은 아, 그렇군이라고 하면서 조사도 안 하고. 알아듣지 못 하는 경찰은 가서 조사는 하지만 그래봤자 헛조사(**갑3, 23:03경, 원문인용**)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다 포함된 겁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사건당사자들에게 혐의 인정 및 위헌신청을 권유하였는지 여부**

2. 피고 1, 3이

혐의를 인정하고 추가 단속에 걸려도 영업을 계속하라고 권유하였는지 여부
(의료법 위반 교사+가중처벌이 안될 것처럼 속여서 자발적 경합범처럼 보이도록 연출 또는 고의범들에게는 범행지속 교사)

3. 피고 1, 3이

혐의를 이미 인정한 상태 또는 벌금이 나온 상태에서도 선임 및 혐의인정한 것을 바탕으로 한 위헌신청을 권유하고, 추가 단속에 걸려도 영업을 계속하라고 권유하였는지 여부
(의료법 위반 교사+가중처벌이 안될 것처럼 속여서 자발적 경합범처럼 보이도록 연출+혐의인정해야 한다고 속여서 위헌신청서 제출 교사 또는 고의범들에게는 위헌신청서를 악용한 범행지속 교사)

4. 피고 3이 마사지 포괄일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위헌결정이 나올 때까지, 나아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추가 단속이 와도 “모두 흡수된다”, “헛조사다” 라는 취지로 영업 지속을 교사하고

피고 1이 피고 3의 주장에 동조하며 연차법을 언급하며 추가 단속이 나와도 경찰서에서 추가 조사를 안한다.는 발언을 하고

피고 3의 교사 발언에 동조하였는지 여부

(가중처벌이 안될 것처럼 속여서 의료법 위반 교사+ 자발적 경합범처럼 보이도록 연출)

5. 위와 같은 발언과 권유가 반복·누적된 타임라인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

대한민국 최초의 무죄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피고들의 광고와

17년 경력 변호사 피고 3의 발언과 유명 유튜버 피고 1 발언에 속게될 경우,

원고 등 사건당사자들이 폐업하거나 위헌신청을 이용한 혐의인정을 바탕으로 한 영업지속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압박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6. 갑3호증 영상이 우연히 촬영된 것이 아니라,
피고 1, 3의 발언 흐름과 반응(박수, 고개 끄덕임 등)을 중심으로
촬영 각도 변경·줌인 변경·이 반복되며 기록되었고,
그 촬영·게시·유포·삭제에 피고들이 지시·승인·묵인하였는지 여부

7.2022. 7. 28. 원고가 피고 3에게 공판정 허위진술을 근거로 해임통보 문자를 보내고, 2023. 5. 29. 피고 3에게 공판정 녹음물 파일을 휴대폰으로 보낸 뒤 피고들이 갑3호 대응방법 영상속 발언들의 위법성내지 피해위험성을 인식하고 2023. 6. 3.경 피고 2가 원고에게 전화하여,
합법화를 위해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 3을 소개하였다고 고백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해당카페를 통해 공유한 대응방법 영상과 박태원 표시를 모두 삭제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며
원고 항의내용과 표시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사과하였는지 여부

8.2022. 7. 28. 원고가 피고 3에게 공판정 허위진술을 근거로 해임통보 문자를 보내고, 2023. 5. 29. 피고 3에게 공판정 녹음물 파일을 휴대폰으로 보낸 뒤 2023. 6. 3.경
피고들이 갑3호 대응방법 영상속 발언들의 위법성내지 피해위험성을 인식하고 삭제 지시, 삭제 승인, 삭제 묵인 등의 사후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증거 인멸 또는 책임 회피 정황)

9. 본건의 핵심은
피고들이 광고 및 발언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마사지 자체의 합법성이나 건전마사지의 합법성 여부 그 자체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피고들이 자신들의 의료법 위반 교사 및 부정의료업(무면허 치료시술) 교사 구조를 유지·확장하고,
나아가 자신들에 대한 형사책임 및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 **(범행동기)** 아래,원고 등 사건당사자들과 피부 미용 등 마사지업 종사자들에게 “마사지 자체가 위법” 및 “건전마사지가 위법”이라는 공포와 해악을 주입하고, 혐의 인정과 위헌신청을 전제로 한 영업 지속을 유도하며,

그 과정에서 탄원서 서명 수집, 건전마사지로 이미지 조작, 선처 사유 형성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구조적 교사 및 기망 행위를 실행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증거 1. 조직적인 허위및 오해유발 법률정보 유포·공포 조성·발언 및 광고관련

갑26호. 1~7쪽. 항소심에서 갑3호 영상등을 근거로

공판조서 탄핵 후 원고 업소 종업원들 3명 무죄 판결 **[공포 조성 광고 증명]**

갑12호. 공판조서 탄핵 후 원고 종업원들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확정증명서)

갑21호. 갑22호. 피고 2가 2023. 6. 3.경 원고에게 전화한 음성파일과 녹취록

갑62.1~83쪽. 원고측 공소장변경과 관련한 증거**[실제 피해및 진술오염 과정]**

갑66.1~47쪽. [증65]2017.2.1.경 원고측 근로계약서. 원고진술. 원고측 의사표시

갑73-20항.2008년경부터 피고 3등의 본 사건과 동일 유형의 변호사 표시 광고

갑73-21~27항.피고들의 위헌신청서 제출및 의료법위반 교사및 경합범유인광고

갑75호. 박태원 음성파일 문자 확인[=공판정 허위진술 녹음물]표시 문자 촬영

갑76호. 구동명과 원고의 문자내용[=갑3호 광고 위법성 항의] 촬영

갑77호. 정수현과 원고의 문자내용[=갑3호 광고 위법성 항의] 촬영

갑78호. 박태원 사무실 여직원과의[=피고3측 위법성 항의] 문자내용 촬영

갑86-1~39쪽.조직적인 허위및 오해유발 법률정보 유포·공포 조성·발언및 광고

갑73-30항.[00:30~08:30]위헌신청 유인,수백명 탄원서 서명유인,500명이상서명

별첨 1~16쪽. 갑3호 대응방법 영상에 대한 녹취록[=갑4호] 원본발체,일체참조.

증거 2. 피고들의 영상등을 이용한 공동교사로 인한 실행 및 결과 관련

갑70.1~15쪽.경합범 판결문들.위헌신청서 악용.피고 1,3 교사로 인한 실행결과

갑68.1~22쪽.[증72]부정의료업 창업안내서.구조를 이용한 부정의료업 교사증거

갑69.1~78쪽. [증73]13개 지점 블로그 고객리뷰.의료광고.치료시술및 교사증명

갑81.1~24쪽. 반사회적 부정의료업및 교사 영상들에 대한 핵심녹취록 모음

갑82.1~32쪽.피고 3이 변호한 부정의료업자,의료광고 판결문들**(기타,25년 사망 사건들, 위험성증명)** 갑71-1항~40항. 갑72-1항~25항. 갑73-1항~19항.일체참조.

나. 심리 예정인 갑3호 핵심증거 설명

1. 사전 숙지의 필요성

2025. 10. 28.과 2025. 12. 23.

두 번의 변론기일에서 본건 핵심 증거가 마치 처음 제시되는 증거인 것처럼 심리가 진행되어 온 경위가 있고, 본건은 다음 기일에서 심리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다뤄질 **“최대 쟁점에 해당”**하므로 사전 숙지가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이에 재판부와 피고들께서는 아래 약 13분 분량의 핵심 증거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 원고는 본건에서 피고들의 발언과 광고의 위법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비속어를 포함하여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3. 다만, 표시광고나 발언의 분량이 과도하게 길거나 동일 취지의 발언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가독성과 쟁점 정리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부를 생략하고 **“~라는 취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각 발언의 전체 원문과 전후 맥락은 모두 갑3호증 원본 영상과 별첨 녹취록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으며, 본 서면의 인용은 원문을 축소·왜곡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4. 특히 갑3호증은 개별 발언 하나하나를 떼어내어 평가할 수 없는 증거로서, 각 항목의 촬영각도 변경, 줌인 변경, 고개 끄덕임, 박수, 촬영 종료 장면 등은 모두 발언의 위법성 인식 및 교사 구조 판단을 위한 핵심 정황입니다.

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발언이 어떻게 누적되고, 사건당사자의 인식과 선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전체적으로 심리해야만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다. 갑3호증 타임라인 전면 인용 (1~21)

별첨 1~16쪽. 갑3호 대응방법 영상에 대한 녹취록[=갑4호] 원본발체, 참조.

1. [갑4-1쪽 (갑3, 00:10~00:22경) / **12초** / 별첨 1쪽]

피고 3은 “전세계에서 맹인한테만 마사지하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팩트입니다. 팩트.”라는 취지로 발언

2. [갑4-2쪽 (04:00~04:25경) / 25초 / 별첨 2쪽 / 촬영 줌인 변경]

피고 3은 “변호사를 갓 시작할 시기 때부터 말도 안 되는 거라 생각하고 17년간 제가 마사지 단속 재판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는 취지로 발언

3. [갑4-4쪽 (09:35~10:13경) / 38초 / 별첨 3쪽 / 촬영 줌인 변경]

피고 3은 “우리가 자유롭게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야, 의료법에 있는 맹인 독점조 항, 이거 위헌이야 이렇게 판결해주면 이거 없어져버립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라는 취지로 발언

4. [갑4-5쪽 (갑3, 11:22~11:47경) / 25초 / 별첨 4쪽 / 촬영 각도 변경]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치료 안마 마사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먹혀들어간 겁니다. **최초로 무죄** 판결 난 분이 여기 계시는 구동명 대표님이고, 그 변호사가 저였습니다. 라는 취지로 발언

5. [갑4-6쪽 (갑3, 14:55~15:35경) / 40초 / 별첨 5쪽 / 촬영 각도 변경]

피고 3은 단속 시 “맹인만 하게 돼 있는 법을 잘 안다”고 말해서 경찰을 돌려 보내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

6. [갑4-7쪽 (갑3, 17:00~17:40경) / 40초 / 별첨 6쪽]

피고 3은 우리 구동명 원장이 받은 것은 고발 들어와서 ‘아, 예, 우리 이거 맹인 독점법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돌아가세요.

내가 조사받을게요’ 해서 저하고 같이 경찰 단계에서 조사받았습니다.

경찰하고 안 싸웠습니다. 이런 거 맹인 독점법 있는 거 안다. 팩트 있는 대로 얘기할게. 근데 우리는 법정 다툼을 할 거니까 어서어서 넘겨주세요.

검찰이 법원 단계 넘어가서 여기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법원 단계에 와서 여기서 치열하게 다투면 됩니다.

앞단계에서 불을 필요 없다.라는 취지로 발언

7. [갑4-8쪽 (갑3, 18:00~18:35경) / 35초 / 별첨 7쪽]

피고 3은 “지금 무죄였기 때문에 2021년 위헌 결정될 가능성도 아주 높다. 그

래서 **헌법재판소 결과가 날 때까지 대법원까지 가서 다투라고 권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

8. [갑4-8쪽 (갑3, 18:50~19:47경) / 57초 / 별첨 7쪽]

피고 3은 **“헌법재판소에서 무죄가 나면 그 뒤의 사람들도 전부 적용된다.** 그런데 벌금 내면 구제받지 못한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 동안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이 사건이 이렇게 쪽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맹인들이 짜증 나게 12월 달에 또 고발했다. 이게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 이 **12월 달에 고발한 게 별도의 사건은 안 된다. 여기에 흡수돼 버린다.**”는 취지로 발언

9. [갑4-8,9쪽 (갑3, 19:45~20:31경) / 46초 / 별첨 7,8쪽 / 촬영 각도 변경]

피고 3 발언을 듣고 사건당사자가 경찰서에 가서 다시 조사받는지 물어보자, 피고 1이 **“아니요. 안 받아요.”**

나는 열 번 넘게 걸렸었는데 우리 매번 이거 재판 진행 중에는 또 와도 **연차법에 의해서** 그냥 지금 재판 중인 서류만 보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아,그럼 그 서류 좀 보내주세요,**그래서 거기서 끝내요,**라는 취지로 발언

10. [갑4-10쪽 (갑3, 22:30~23:10경) / 40초 / 별첨 9쪽 / 촬영 각도 변경]

피고 3은 “6, 7년 전에 그것도 제가 담당한 사건이었는데 대법원에서 마사지는 포괄일죄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따라서 포괄일죄 이거는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날 때까지 추가 연속돼서 여기 다 들어가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주면 알아듣는 경찰은 아, 그렇군이라고 하면서 조사도 안 하고. 알아듣지 못 하는 경찰은 가서 조사는 하지만 그래봤자 헛조사(**갑3, 23:03경, 원문인용**)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다 포함된 겁니다.”라는 취지로 발언

11.[갑4-10,11쪽 (갑3, 23:10~23:50경) /40초/ 별첨 9,10쪽 / 촬영 각도 변경]

피고 3은 벌금을 내고 그 다음 달에 또 걸렸을 경우 포괄일죄가 사건이 끝나 버렸기 때문에 **벌금이 1,000[원문인용]**이 되거나 아니면 징역으로 가거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벌금 내고 끝나지 말고 **이 단계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

12. [갑4-15쪽 (갑3, 29:40~30:00경) / 20초 / 별첨 11쪽]

피고 3은 “이거 맹인들만 할 수 있게 하는 거 알고 전에도 우리 재판해 봐서 알고 협회에서도 교육받아서 압니다. **내일 나가가지고 다 인정하는 진술할 겁니다.** 오늘 막 손님 있고 하니까 오늘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아주 또라이(**갑3, 29:55경, 원문인용**) 아니면은 경찰도 다 돌아갑니다.”는 취지로 발언

13. [갑4-15쪽 (갑3, 29:58~30:15경) / 17초 / 별첨 11쪽]

사건당사자가 “그럼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그냥 인정을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 시네요?”라고 질문하자 피고 3은 “**그렇죠. 원데 부인합니까? 사업자등록 내고 마사지샵 하고 있는 거 뻔한데 거기서 내가 마사지 안 했다고 부인할 겁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라고 발언

14. [갑4-17쪽 (갑3, 31:20~32:02경) / 42초 / 별첨 12쪽 / 촬영 각도 변경]

피고 1은 “경찰관들이 오면 사진을 찍으려고 그래요. **마사지하는 사진을.** 그러니까 **그걸 증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을 때 빼박이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현행법상 어찌 됐건 위법이다.** 네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검찰까지 올라가는 게 맞다**”는 취지로 발언

15. [갑4-19쪽 (갑3, 33:25~33:47경) / 22초 / 별첨 13쪽]

사건당사자가 “변호사님 말씀은 **그 정도 상황이 되면 그냥 인정하고** 내일 가서 인정할 테니까 오늘은 그냥 조용히 가세요, 그게 낫다 이거죠?”라고 질문하자,

피고 1이 “**깔끔하죠**”라고 발언하고, 피고 3은 “**자신이 경찰에게 의견서를 보내면 추가 단속도 없다, 그래서 옥신각신 다투고 그러는 거는 괜히 경찰하고 사이만 나빠지고. 또 원장님들도 피곤하고. 그러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

16. [갑4-20쪽 (갑3, 34:35~35:02경) / 27초 / 별첨 14쪽 / 촬영 각도 변경]

피고 1은 저는 그냥 오면 바로 인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괜히 관리사 선생님들 일하고 있는데

선생님들 사진까지 찍히면 그들도 같이 조사받아야 돼요. 피곤해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인정. 오케이. 내가 이거 **불법인 거 인정.** 근데 사진 같은 건 찍지 말아주세요. 고객들은 하니까 불편하지.

사진 찍지 말아달라고 거기서 인정하면은 그냥 안 찍어요.라는 취지로 발언

17. [갑4-20쪽 (갑3, 35:25~35:52경) / 27초 / 별첨 14쪽 / 촬영 각도 변경]
피고 3은 지금 원장님 말씀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게 **법리적으로 하면은 원장, 관리자, 카운터 전부 공범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진술서에 그게 쓰여 졌으면 조사를 할라고 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술서는 저만 쓰고 저만 들어가는 걸로 해달라, 이렇게 하면 그거 봐주는 경찰이 아주 많아요.**라고 발언

18. [갑4-22쪽 (갑3, 37:18~37:50경) / 42초 / 별첨 15쪽 / 촬영 각도 변경]
사건당사자가 "그러면 저희가 고발 단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지금 그냥 변호사님한테 맡기면 그 기간 1년이고 2년 안에는 경찰이 와도 크게 상관이 없는 거네요?"라고 질문하자,
피고 3은 "그렇게 보시면 되지. 어차피 저희는 여기 다 흡수시켜버릴 거니까요."라는 취지로 발언
이때 피고 1은 사건당사자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며 피고 3의 의견에 동조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한 사실

19. [갑4-22쪽 (갑3, 37:45~37:55경) / 10초 / 별첨 15쪽]
사건당사자가 "330만 원이 부가세는 별도인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 3은 "합쳐서요"라는 취지로 발언

20. [갑4-22,23쪽 (갑3, 37:50~38:54경) / 64초 / 별첨 15,16쪽]
사건당사자가 저희가 그냥 **앞에서 다인정**을 했었고.
저도. 그리고 지금 **벌금 3백**이 나왔고 **항소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질문하자
피고 3은 **지금 선임**해갖고 **하면 되죠.**
피고 1은 **지금 선임**해서 **빨리해야** 되는 거죠
피고 3은 **우리 인정**한 **바탕**에서 재판하잖아요.
피고 1은 **인정**한 **거**를 **바탕**으로
피고 3은 **인정**하지만 **법이 잘못**된 거야, 이거로 가는 거잖아요.
팩트는 인정하지만 법은 틀렸어, 이거기 때문에 지금 하셔도 됩니다.
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참가자들이 박수를 치며 촬영이 끝난 사실**

21. [갑3, 00:50~00:60경 / 10초]
갑3호증 영상을 촬영한 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의자 2개를 치우고 있는 장면

라.조직적인 허위및 오해유발 법률정보 유포·공포 조성·발언 및 광고

1.갑3호 대응방법 영상에 대한 녹취록 갑4호(별첨 1~16쪽)와 갑86-1~39쪽.을 “조직적인 허위 및 오해유발 법률정보 유포·공포 조성·발언 및 광고”라 합니다.

2. 피고들과 피고 3의 여직원은 갑3호 대응방법 영상과 동일 취지의 광고·상담을 공유·전파·고지하는 방법으로, 마사지업 종사자들과 사건당사자들에게 “맹인이 아니면 마사지 자체가 현행법 위반이다”, “마사지를 하기 위해서는 위헌신청을 해야 한다”, “안마법 위반을 모르고 마사지를 하는 사람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의 법률정보를 반복적·조직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3. 피고들이 게시글들의 게시·유포에 피고들이 지시·승인·묵인하는 방법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당카페 등에 아래와 같은 취지의 게시글들과 갑3호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갑86-1~39쪽.

“허위 및 오해유발 법률정보 유포·공포 조성·발언 및 광고” 참조

①(갑86-1쪽. 해당카페에 피고 2[카페지기] 표시로 게시되어 온 글)

“대한민국 최초의 비장애인 마사지 승소 판결문” 구동명

②(갑86-2쪽. 해당카페에 피고 2[카페지기] 표시로 게시되어 온 글)

“마사지 자체를 맹인들만 할수 있다는 법안에 통감합니다.”

③(갑86-3쪽. 해당카페에 피고 2[카페지기] 표시로 게시되어 온 글)

“구동명의 무죄 판결문은 일선 경찰에게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본사 정수현실장에게 전화를 주세요

판결문 사본을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④(갑86-4,5쪽.해당카페에 피고1 이름,피고 2[카페지기] 표시로 게시되어 온 글)

“구동명 입니다” 건마위 이름으로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는 가족 중 실질적으로 단속에 걸려서

변호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변호사를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그때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헌법소원재청시 들어가는 1인당 비용등은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일이 있을때 만 비용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⑤(갑86-6,7,8쪽.해당카페 피고 2[카페지기] 표시로 게시되어 온 사건상담 글들)

11월 26일 12시에 불법 신고 대응을 위한 간담회가 있습니다.

참여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꺼예요 ~

1,판결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청 주세요

2,전문 변호인이 필요하면 이번 판결문에 도움을 주신 변호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직접 자문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선 경찰에서도 판결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이 필요하시면 사건내용을 jshbook@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⑥(갑73-23항. [15:50~16:40] 피고 2[카페지기] 표시로 게시되어 온 글의 영상)

일선 경찰에서도 “무죄판결문”을 인용하기 위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⑦(갑86-9,10쪽. 해당카페에 피고 2[카페지기] 표시로 게시되어 온 글)

20만 명의 건전마사지 종사자들의 생존권과 “건전마사지” 합법화를 위한 탄원서에 서명합니다.(사건 2020 고정 106 의료법위반. 2020 초기 2224 위헌법률심판제청)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탄원 드립니다.

“건전 마사지 행위를 시각장애인 외 일반 비장애인들에게도 문호를 열어 관광 문화 사업의 일원으로 K-마사지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이에 서명에 동참합니다.

⑧(갑86-11쪽.해당카페에 피고들 이름,피고 2[카페지기]표시로 게시되어 온 글)

구동명원장님이 간담회 형식으로 노하우를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박태원변호사님도 참석합니다)

날짜: 11월 26일 (목) 12시~13시

장소: 연주역 1출구(쾌유아카데미) 강남구 논현동 192-22번지 근동빌딩 4층

강사: 구동명원장님, 박태원 변호사

주제: 불법 신고에 대응하는 방법

1, 지난 16년간 불법 신고에 대응했던 노하우 전달과 질의 응답시간

2, 마사지 합법화 위원회 추진 방향

참석: 000점주 대표자 10여명 + 밴드회원중 참석 희망 점주님

갑73-23항. [14:00~15:50] 영상 참조

⑨(갑86-12쪽.2020.11.26.경.이후부터, 피고 2[카페지기] 표시로 게시되어 온 글)

우리는 국민 건강을 위해 건전한 마사지를 합니다.

우리는 안마. 안마시술소 퇴폐마사지 업소가 아닙니다.

구동명 대표님과 함께 하는 간담회

“박태원 변호사님이 쉽게 설명해 주는 “안마법” 대응방법”

강사 구동명 대표 원장님 (영상화면 표시) 마사지합법화 간담회 영상

갑73-23항. [14:00~15:50] 영상 참조

⑩(갑86-13~17쪽. 피고 1 이름, 피고 2[카페지기] 표시로 게시되어 온 글)

경찰조사를 앞둔 사건당사자의 도움을 요청하는 글에 대한 답글

“2021. 3. 25. 구동명 대표원장입니다.”

“우리는 법 위반이라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벌금이 나오면 벌금 내지 말고 재판으로 추천드려요.”

“일단 벌금을 내면 사건은 종료 됩니다. 근데 또 누가 신고해서 또 의료법위반으로 경찰이 나오면 또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많게는 1년에 5번이상 벌금을 물어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재판으로 가시면 1년 반에서 2년간 **의료법 위반으로 열 번 이상 걸려도** 한 가지 사건으로 마무리되오니 재판으로 가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관련 재판을 10년이상 하신 변호사 연락처를 올렸으니 문의하길 추천드려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열두 번 정도 경찰이 왔다 갔습니다.”

갑73-23항. [27:36~32:45] 영상 참조

⑪(갑86-18쪽. 2020.11.26. 이후부터, 피고 2[카페지기] 표시로 게시되어 온 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응할 수 있는 영상도 보내 드렸습니다. 참고하세요. 여러분도 당면할 수 있는 일이며 “마사지 합법화”는 헌법소원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⑫(갑86-19쪽. 2020.11.26. 이후부터, 피고 2[카페지기] 표시로 게시되어 온 글)

통화도 드려서 대응방법을 설명드렸으며 간담회 자료도 보내 드렸습니다.

⑬(갑86-20쪽. 2020.11.26. 이후부터, 피고 2[카페지기] 표시로 게시되어 온 글)

간담회 자료도 보내 드렸습니다.

⑭(갑86-21,22,23,24쪽. /

피고 1,2 명의 표시와 고문변호사 표시로 다음 마연성카페에 게시되어 온 글)

발신: 건전마사지 위원회 / 수신: 마사지 업종(**피부 미용 등**) 종사자

안마법 폐지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탄원서 제출 부탁

“대법원 무죄 판결이 되어야 마사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한자리에 모일 수 없다면 sns에 항의하고 현수막 걸고 시위해야 합니다.

탄원서 양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동종업종 종사자가 10만명**이라고 했지 **힘을 보여** 준 적이 없습니다.”

“판사에게 절대적 다수가 마사지 합법화를 원하고 **무시할수 없도록** 재판부에 보여줘야 합니다.”

“고문변호사를 통해 탄원서 양식을 만들어 공유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 수기인들은 **범죄자로 내몰리게 됩니다.**”

“마사지 합법화를 위한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자율 선택권을 막는 나쁜법이 있습니다.”

“피로 회복을 위한 **건전 마사지 행위**를 의료행위 범주에서 제외시켜
주시길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건전 마사지 행위**를 시각장애인 외 일반 비장애인들에게도 문호를 열어 관광
문화 사업의 일원으로 K-마사지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해 주시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이에 **서명에 동참**합니다.

정수현(=피고 2) 실장에게 탄원서를 파일을 받습니다.

탄원서를 출력해서 매장 카운터에 두어 서명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출력해서 한분이 10명이상 탄원서 서명을 받습니다.

상담문의: 010 7714 3354 jshbook@naver.com

⑮(갑86-25~32쪽 /

2006년경부터 박태원변호사 표시로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되어 온 광고)

나쁜 손님들에 대한 대처 방안 - 박태원

사랑하는 마사지, 수기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박태원 변호사입니다.

자주 글을 올리고, 대화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저의 시간과 마음에 여유가 많지 않다 보니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하구요...

오늘 글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 마사지, 수기사님들을 이용하여 돈을 뜯어 내고자 하는

나쁜 인간들이 있어서,

그런 사례들이 몇건 접수되어서,

그에 관한 사실 관계와 대처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경기도 성남시 00구,

경기도 여주군 00동,

성북구 00동 등에서, 마사지 혹은 지압을 받은 다음,

자신의 몸 상태가 더욱 나빠졌다고 주장하며,

추가적 돈(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위 경기도 성남시 00구 사건의 경우,

샵 원장님을 형사고소(의료법위반과 상해죄)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3 사건 모두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거나,

의료법 위반만으로 기소되었는데 결국 기소유예

(위법 경미하여, 검사가 기소 자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함)로 해결되었습니다.

세상이 하수상하다보니,

참으로 열심히 몸을 가지고, 몸으로서, 몸을 상대로

맘을 다해 살아가시는 우리 마사지, 수기요법 동지들에 대해

사기를 치는 인간들도 다 나타나는군요..

제 이야기의 결론

1. 위에서 본 것처럼 처벌받는 경우로 나아가는 예가 거의 없으니,
절대 겁먹지 말자

2. 당당하게 대응하자, 기껏 기소되어 봐야 의료법 위반이다,
현소청구[원문인용] 했으면 겁날 것 하나도 없다.

3. 마음으로부터 내 직업은 참으로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지자.

4. 나쁜 사기꾼들에 대해서는 무고죄나 사기죄 등으로 맞고소를 하자...
이러한 경우를 당하였을 때,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대응하시고,
저희 법인으로 연락하여 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고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성실: 02-592-6400 변호사 박태원

관리자 | 06-11-20 | 조회 17,847회

⑯(갑86-33~37쪽 /

2008년경부터 박태원변호사 표시로 인터넷 다음 마연성 카페에 게시되온광고)

[스크랩] 박태원변호사입니다. (재판스케치) mijin | 08.01.08

최근 00지방법원 의료법위반, 피고인 정00님...

재판이 있어서, 잠시 분위기 전해드릴까 하구요...

사건번호 2006고정0000 피고인 정00

사건을 호명하며, 변호사 출정하고, 피고인 출정하다.

판사 : 피고인의 주민번호와 주소, 본적을 확인하다.

검사 : 피고인은 2003. 10. 10.부터 2006. 1. 10.까지 서울 00구 소재

000샵에서 손님 1인당 5만원 내지 12만원을 받으며,

무허가 안마업을 한 것이 사실인가요?

피고인 : 예

변호사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나,

공소사실의 적용법조가 위헌이므로,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이지요?

피고인 : 예

이하... 생략하구요...

판사 : 나도 해외에 나가서 마사지 많이 받아 봤는데, 참...

검사 : 검연쩍은 웃음

판사 : **피고인은 앞으로도 마사지업을 계속하실 것인가요?**

피고인 : 네... 저는 이 업을 사랑하고, 이 업으로 자식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계속할 것입니다.

판사 : 만약, 이 자리에서 **위헌판결 날때까지**
마사지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훨씬 선처가 가능할 터인데요...

피고인 : **싫어요..** 저는 무죄판결 받고 싶어요...

판사 : 미소를 지으며...알겠습니다. 잘 판단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수기사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위 분처럼 당당하게 우리의 업에 종사하세요...

저희 성실이 수기사님들과 같이 재판한 사건 중,
벌금형 받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재판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에 제가 적은 것과 비슷하게 재판진행되니까,

겁먹지 마시구...함께 우리 이 길을 조금의 흔들림 없이 걸어 갑시다...

스크랩 원문 : **바른 수기요법사 모임**

[스크랩] 박태원변호사입니다3

mijin | 08.01.08 | 139

하나 빼먹어서 다시 글을 씁니다.

저는 협회나 학회를 반드시 통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각에서 협회장이나 학회장과 변호사가 **결탁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잘 알고 있는데요...위헌이 나도,

또 다시 "당신네, 이야기를 통합할 수 있는 조직이 없지 않나?,

대화의 상대가 없지 않나?"

라는 **공무원의 발언**에 또 다시 좌절하기 싫어서입니다.

여러분들, 뒤에 우리가 **뻥**[원문인용]으로 있을게요...

그 까이거, 맹독법 그 까이거[원문인용]...

맘 편히 영업하시고, 용기있게 투쟁하시게, 저희 성실...**책임**지겠습니다.

스크랩 원문 : **바른 수기요법사모임**

마. 원고의 증거신청및 석명명령 신청

1. 피고들의“조직적인 허위및 오해유발 법률정보 유포·공포 조성·발언 및 광고”를 이용한 위헌신청서 제출 권유[교사], 위헌신청서들의 모해성, 피고 3이 원고측 의사에 반해 원고 종업원 김선영 외 2 형사사건에서 “증거에 대해서도 전부 동의 의견입니다”라고 기재한 의견서 제출의 모해성, 공판정 허위진술과 모해성, 그리고 이와 상반되는 소송상 주장을 병행하여 법원을 기망한 소송사기 실행의 착수 부분, 원고의 피해규모에 관하여는,

재판부가 피고들 당사자신문사항 및 피해자이자 목격자인 종업원 3명에 대한 증인신문사항 제출명령에 따라, 각 행위별 구성요건과 인과관계를 특정한 증거목록을 첨부한 별도의 준비서면과 신문사항들을 제출할 것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2. 재판부에서 원고가 제출한 강제호증들 중에서 사회 통념상 당연히 인정되는 증거들에 해당하는 공판조서와 의견서와 위헌신청서들과 영상증거들과 음성파일 증거들이라도 증거인부 명령을 해주시고 피고들이 해당 증거들의 내용을 문서를 통해 인정한다면 피고들 당사자신문들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피해자이자 목격자인 종업원 3명에 대한 증인신문들만 진행하고자 합니다.

바. 결론 (사회적 해악성)

1. 원고의 주장은 법률적 평가를 선행하는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 발언·시점·행위가 특정된 증거에 기초한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2. 다만, 본건은 직접증거가 존재하고, 반복성과 구조성이 명확하며, 현재까지도 유사한 방식의 허위·오해유발 법률정보 제공과 재판 중 범행 지속과 범행 교사를 목적으로 한 위헌신청서 제출 교사 및 경합범 유인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중대합니다.
3. 또한, 피고 3의 공개교사 이후, 5개 안마시술소 관련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 1이 피고 2와 유튜브 채널등에 게시한 수십 개 치료시술 및 교사 영상 및 백 개 이상의 교사 영상들과 영상들속 광고 게시글, 피고 1의 학원[=안마시술소] 및 13개 안마시술소를 이용해 상당수 국민들의 마비증상, 횡경막파열 등의 상해를 불러일으켜온[=영상들속 피고 1의 자백들과 여 종업원의 자백을 근거로 함] 반사회적 치료시술 및 부정의료업이 현장교육과 유튜브 교육용 영상들을 통해 “120명의 수기치료사들에게 교사 된 후 상당수가 취업” 되었고 이 순간에도 영상을 통해 교육되고 있다는 점, 환자들과 수강생들과 공동창업자들이 유인되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중대합니다.

갑81.1~24쪽. 반사회적 부정의료업및 교사 영상들에 대한 핵심 녹취록 모음
갑72-2항~25항. 피고 1의 각종 치료시술및 치료시술 교사 영상 녹취록들 참조
갑71-27항. 후두골 정확한 위치를 찾아 풀어내기 영상
갑71-28항. 후두골 마비증상 경고 영상모음[중요 영상들을 모아 편집 함]
갑71-29항. 후두골 1대1 자세교정 모음등[중요 영상들을 모아 편집 함]
갑73-10항.[20:20~25:05] 120명 수기치료사들에 대한 부정의료업교사, 전 지점 취업 광고, 수강생들에게 수기요법(手技療法) 자격증 발급 영상 참조

사. 첨부자료

별첨 1~16쪽. 갑3호 대응방법 영상에 대한 녹취록[=갑4호] 원본발췌

2026. 1. 2.

원고 김 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 민사부 귀중

본 문

- 영상파일명 : 박태원 변호사님이 쉽게 설명해주는 “안마법”
- 촬영날짜 : 미상(동영상 발견 시기 2021년 01월 10일경)
- 촬영장소 : 미상
- 대 화 자 : 박태원 변호사 / 구동명 / 불상인 사건 당사자
불상인 업주들 등

박태원

전세계에서 맹인한테만 마사지하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불상인
사건 당사자

그렇죠.

박태원

서양이나 이런 데는 이미 거의 100여 년 전부터 마사지가 산업화하기 시작했고, 세계에서 할리우드 영화배우들 가는 유명한 리조트 같은 데 다 마사지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조선시대 이럴 때도 마사지 있었을 겁니다. 침 놓고, 침 대신에 이거는 손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다 했을 거데.

마사지 내지 안마가 직업의 영역으로 시작된 거난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됐어요. 일제시대 때 왜놈들이 자기들이 개항을 해서 서양인들이 자기 나라에 오는데 맹인들이 지팡이 짚고 길거리 다니는 게 보기 싫다. 이렇게 해서 맹인들을 한 곳에 몰아넣습니다. 거기서 먹고 살으라고 시킨 게 안마였어요. 그래서 일본놈들이 우리하고 대만을 식민지로 만들면서 맹인한테만 안마를 하게 했는 법을 대만과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그게 1912년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맹인 안마사들이 주장하는 게 자기네들 안마 역사가 100년이 넘는다는 게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패망을 하고, 일본은 1964년도에, 벌써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죠. 1964년도에 맹인만 안마를 하게 하는 법을 폐지했습니다.

그럼 전세계에서 딱 남아있었던 게 대만하고 우리나라였는데 대만은

1)
7
8

갑
제
4 호
증의
1

2008년도에 대만 대부분이 맹인만. 거기는 맹인만 안마를 하는 게 아니고 맹인한테 우대를 줬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직업의 자유 위반이라고 폐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딱, 전세계에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950년, 60년, 70년,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중반까지는 우리가 선진국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안마나 마사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시선을 돌리지 않았죠.

안마라는 것은 안마시술소에서 퇴폐하러 가는 사람들이 가는 거. 대부분 그렇게 인식을 했었었는데. 1990년대 중반이 되면서 스포츠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하나둘씩 샴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사지샵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는데 1997년도에 IMF가 왔습니다. 실직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쏟아지고 이혼도 많이 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정부에서 노동부에서 실직한 사람들, 또 이혼한 주부들 마사지 배워라. 마사지 학원에 나랏돈으로 학원비를 대줄게.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마사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무슨 송기택 씨나 이런 분들이 그런 정부 자금 지원을 받는 학원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나라 마사지샵들, 스포츠마사지샵들이 조금씩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가 되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맹인들이 고발을 해서 단속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었어요. 저 시기가 제가 변호사를 갓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걸 쪽 공부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됐어요. 실제로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 때부터는 지금 17년간 제가 마사지 이쪽 일을 하고 단속당하고 재판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 때에는 저도 참 젊었을 때였는

데 금방 합법화될 거로 믿었는데 이렇게 20여 년이나 세월이 흐르리라고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사지하시는 업주님들이 겪어온 고통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저희가 쪽 재판을 준비해서 2006년도에 헌법재판소

2) 20

24

갑 제 4 호 증의 2

독점조항을 이 의료법으로 옮겨버렸습니다. 맹인 독점조항을.
그러니까 2006년도 전에는 맹인 독점조항이 안마사 규칙에 있다가 지금
현재는 의료법입니다.
우리가 위헌 판결받은 것은 안마사 규칙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이걸 의료법으로 옮겨버려가지고, 물론 이것 자체도 헌법에 위반되는 행
동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닭 쫓던 개 비슷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계속해서 이번에는 안마사 규칙에 있는 맹인 독점조항이
아니라 의료법에 있는 맹인 독점조항이 위헌이다라고 다툼을 계속해왔습니
다. 그게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14년이나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 계속해서 지금까지 위헌하고 기각되고 또 위헌하고 기각되고.
심지어 판사들도 판사들이 우리를 위로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여러분들 꺾이지 말고 계속해라. 그래야지 정부든 국민들이 여러분들 이
야기를 들어줄 것이다. 간통죄도 다섯 번 만에 20년 만에 합헌에서 위헌
으로 바꿨고, 낙태죄도 거의 20년 만에 네 번, 다섯 번 만에 위헌으로 바
꿨다. 여러분들도 좌절하면 안 된다. 심지어 판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오
고 있는 그런 14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내 환갑 전에 이게 되겠다. 환갑이 넘어서라도 계속할란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20년 9월에 아주 획기적인 무죄 판
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리나라 법원 중에서, 우리나라 지방법원 중에서 최
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특히 부장판사님이 무죄
판결을, 판결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마사지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자유롭게 마사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2개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방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해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야, 의료법에 있는 맹인 독점조
항, 이거 위헌이야 이렇게 판결해주면 이거 없어져버립니다. 그날부터 마
사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해주면 이 맹

갑
제
4호
증의
4

3)
23

27



인 독점조항이 없어져요 그냥. 그날부로.

근데 법원이 무죄 판결하는 것은 이 맹인 독점조항을 없애지는 못 해요. 이걸 없앨 수 있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만 있어요.

그럼 법원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맹인 독점조항을 없애지는 못 하지만 이번에 무죄 판결 난 이유가 뭐냐면 이 맹인 독점조항을 법원이 없애지는 못 하지만 이 맹인 독점조항에서 맹인만 안마 마사지할 수 있다고 할 때에 안마 마사지는 이게 의료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치료 안마, 치료 마사지만 맹인이 할 수 있는 거다. 치료 안마, 치료 마사지가 아닌 일반 혈액순환, 피로 회복,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안마 마사지는 이 맹인 독점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죄 판결이 되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해가지고 이거 자체를 죽여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법원한테 싸워가지고 이거는 그대로 존치를 하되 여기서 말하는 안마 마사지는 치료 안마 마사지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치료 안마 마사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먹혀들어간 겁니다.

최초 무죄 판결 난 분이 여기 계시는 구동명 대표님이고. 그 변호사가 저였습니다. 지금 현재 그 후로도 무죄 판결이 연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13

18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법원 삼세판이죠. 1심, 2심, 3심.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받은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그 위에 고등법원, 그 위에 대법원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린 무죄 받은 겁니다.

지방법원 중에 최고 으뜸 지방법원이 중앙지방법원에서 무죄 받았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도 대법원에서도 무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맹인들도 만만치 않죠. 이거를 뒤집기 위해서 아주 큰 로펌을 사서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싸움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제 제가 중앙지방법원에 다른 재판이 있어서 가니까 아침에 9시부터 플랜카드 펼쳐놓고 데모하고 있더라고요. 판사들 보라고. 아무튼 이런 현

갑

제

4 호

증의

5



실인데.

그 판사님 혼자서 무죄 판결한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중앙지
방법원에 있는 형사 판사들이 여러 명이 의논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풀어줘야지 될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미적미적하고 있으
니까 우리 법원이라도 나서가지고 이걸 뚫어봐야 되겠다 해서 무죄가 난
거라서 계속 (...) 최선을 다해서 싸워보겠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난다면 하나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되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거를 없애야지만 될 것 같기 때문에 이거 둘 다
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지금까지의 역사와 지금 현재 실태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은 단속이 됐을 때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무죄 판결 나기 전에도 심심하면 맹인들도 단속하고 아니면 술 취
해가지고 마사지 요금 내기 싫어서 경찰에 신고하는 놈도 있고.

또 심지어는 경쟁업체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는 관리사하
고 업주하고 싸우고 나가지고 관리사가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
로 수난을 당해보셨죠.

무죄 판결 나고 나서 맹인 안마사께서는 본격적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발을 하게 되면 무조건 경찰이 나옵니다. 왜냐. 이 맹인 독점조항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경찰관은 이런 법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것은 맹인 독점법 보니까 맹인만 할 수 있는데 일반인이
마사지했으니까 고발 들어왔으니까 우리 출동해야지 해서 경찰이 오죠.
그럼 여기서 막 싸우는 원장님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맹인 독점법 이거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거 가지고 법리적으로 싸워야
되지 사실관계로 경찰한테 백 번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경찰 오면은 '아, 예 우리도 지금 현재 맹인만 이거 하게 돼있는 법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변호사도 선임해
서 재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경찰 당신네가 일단 수사는 해야
되니까 우리 적극 협조하겠다. 근데 오늘 손님도 계시고 하니까 조용히

갑
제
4호
증의
6

5)
25

28

가시라. 원장이 내일이라도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경찰을 조용히 돌려보내고. 그다음에 경찰 단계에서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경찰은 유죄, 무죄, 이런 거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경찰이 그런 권한 일부를 가지게 되는데 지금은 없어요. 경찰은 팩트만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여기 원장이 맹인이냐, 아니냐. 여기 몇 평이냐. 여기 수입이 어느 정도냐. 언제부터 이 업소를 했느냐, 이런 팩트만 조사를 해서 경찰은 검사한테 갑니다. 검사도 유무죄를 결정 못 해요. 검사도 유무죄를 결정을 못 하는데 검사는...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은 판사가 하지. 법원이.

판사한테 올리기 전에 검사는 나름대로 이것을 벌금으로 기소할 거냐. 아니면 징역으로 기소할 거냐. 이거는 검사는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 기소가 되든 징역 기소가 되든. 징역 기소가 된다고 해서 이 단계에서 실제로 구속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판사. 법원 단계에 가가지고 판사가 유죄냐 무죄냐.

벌금이면 벌금을 5백을 주냐 1,000만 원을 주냐. 징역을 주면 징역 1년을 실형을 주느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해가지고 집행유예로 한 번 풀어주느냐, 그런 걸 결정하는 것은 결국 판사가 하죠.

이번에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 구동명 원장이 받은 것은 고발 들어와서 '아, 예, 우리 이거 맹인 독점법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돌아가세요. 내가 조사받을게요' 해서 저하고 같이 경찰 단계에서 조사받았습니다.

경찰하고 안 싸웠습니다. 이런 거 맹인 독점법 있는 거 안다. 팩트 있는 대로 얘기할게. 근데 우리는 법정 다툼을 할 거니까 어서어서 넘겨주세요. 검찰 단계 넘어갔고. 검찰이 법원 단계 넘어가서 여기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와서 이 법원 단계에 와서 여기서 치열하게 다투면 됩니다. 앞단계에서 붙을 필요 없다.

그리고 이 법원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3개로 쪼개지죠.

1심, 2심, 3심.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헌법재판소도 심리 중에 있거든요. 일부가. 제 생각에

6)
17

25

갑
제
4호
증의

7

는 이것도 2021년에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무죄
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날 가능성도 아주 높아요.

그래서 재판 빨리 끝내면 안 됩니다. 이 헌법재판소 결과가 날 때까지.
또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부터 이 단
계까지 쪽 가면서 다투라고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걸리느냐. 1년 내지 2년 걸립니다.
그리고 그 기간 안에는 벌금도 안 내도 괜찮다. 그리고 그 기간 안에 헌
법재판소에서 무슨 일이 나도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지금 제일 먼저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구동명
원장님인데 구동명 원장님이 대법원 판결도 그 안에 나지 싶습니다.

그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무죄가 나면은 그 뒤의 사람들도 전부 적
용되겠죠. 근데 그 뒤에 아, 귀찮아서 뭐 이번에 벌금 3백밖에 안 나왔는
데 내고 치우자. 구제 못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 동안 1
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여기서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 동안 또 걸렸다. 맹
인이 또 고발을 했다. 맹인이 10월 달에 고발을 해가지고 이 사건이 이
렇게 쪽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맹인들이 짜증 나게 12월 달에 또 고발했
다. 이게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 이 12월 달에 고발한 게 별
도의 사건은 안 됩니다. 여기에 흡수돼버립니다.

불상인 사건 당사자	조사는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가서. 경찰서에 가서.
구동명	<u>아니요. 안 받아요.</u>
박태원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구동명	아니 연차법에 의해서 저렇게 됐을 때 우리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다라 고 하면 재판 진행 중에 있는 근거를 달라고 그래요.

7)
1
2

8)
11

19

9)
20

갑
제
4호
증의
8

불상인 사건 당사자	아,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가지고 안 받았어요.
박태원	경찰이 이걸 모르는 경찰이 태반인데.
구동명	모르는 경찰인데 보통은 연차법에 의해서 이거 지금 저는 이거 한 번 걸린 거 아니고 열 번 넘게 걸렸었는데 우리 매번 이거 재판 진행 중에는 또 와도 연차법에 의해서 그냥 지금 재판 중인 서류만 보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아, 그럼 그 서류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끝내요.
불상인 사건 당사자	저도 그랬어요. 구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형사, 재판 중에 있으니까 그 사건번호를 대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주니까 그 당시 전화가 없었는데 다른 두 군데 같은 경우는 와서 조사받고 또 받았어요.
구동명	그러니까 그거는 그 경찰관들이 이 법을 잘 모르는 건데 그때 내가 잘 설명해야 돼요, 이게.
박태원	이거 설명을 쉽게 드릴게요.
구동명	그러니까 경찰에 따라 틀려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내가 잘 설명을 하면 그들도 모르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예 일단은’... 당황스러워해. 그러면서 ‘그럼 그 사건번호 좀 줘보시겠어요? 저도 물어볼게요’ 이렇게 간다고.
불상인 사건 당사자	아~ 경찰관한테 확인해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17

갑
제
9호
증의



구동명	예.
	이거 형법에 죄의 개념이 포괄일죄라는 죄가 있고 단순일죄라는 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0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살인마가 한 달에 1명씩 사람을 죽였다. 살인죄를 저질렀다. 그다음에 포장마차 이거 식품위생법상 불법이다. 9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포장마차에서 계속 영업을 했다. 이런 경우에 살인죄는 단순일죄기 때문에 9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사람을 60명 죽였으면 살인죄가 60개는 됩니다. 근데 포장마차에서 9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물건을 팔았다. 그럼 60일 동안 식품위생법 위반죄가 60개가 되느냐. 아닙니다. 이런 거는 영업적으로 연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포괄일죄로 봅니다. 한 개의 죄입니다. 근데 어떤 죄가 포괄일죄냐 단순일죄냐 이것을 가리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박태원	그럼 마사지는 맹인이 아닌 사람이 마사지했을 때 손님 1명당 의료법 위반죄가 1개씩 성립하느냐. 아니면은 포괄일죄가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6, 7년 전에 그것도 제가 담당한 사건이었는데 대법원에서 마사지는 포괄일죄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사도 모르는 검사가 많고. 판사도 모르는 판사가 많기 때문에 경찰은 더더욱 모르는 경찰이 많아요. 따라서 포괄일죄 이거는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날 때까지 추가 연속돼서 여기 다 들어가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주면 알아듣는 경찰은 아, 그럴군이라고 하면서 조사도 안 하고. 알아듣지 못 하는 경찰은 가서 조사는 하지만 그래봤자 헛조사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다 포함된 겁니다.
4호 증의	근데 그렇지 않고 아, 귀찮아서 벌금 내고 치우지. 벌금 냈어요. 그다음 달에 또 걸렸어요. 그분은 포괄일죄가 사건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사건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죄로 다시 조사받고 다시 벌금 내거나 해야 돼요. 그전에 한번 걸려서 벌금 5백 냈기 때문이 이번에 또 걸리면은 벌

10)
13

23
11)
24

27

갑
제

4호
증의
10

	금이 1,000이 되거나 아니면 징역으로 가거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벌금 내고 끝나지 말고 이 단계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불상인 사건 당사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제가 엇그저께 대치 쪽에서 단속을 받고 조사를 했어요. 근데 어제 또 나와가지고 조금 이따 2시에 또 가야 돼요. 근데 관할서가 틀려요. 하나는 수서. 하나는 광진.
박태원	같은 업장인데?
불상인 사건 당사자	아니 다른 업장이죠. 하나는 대치동 쪽이고 하나는 강변 쪽인데,
구동명	2개의 업장을 갖고 계신 거예요?
불상인 사건 당사자	예. 대치에서 조사를 어제 받았어요. 근데 오늘 단속이 나와서 오늘 또 2 시에 오라는 거예요.
박태원	그건 가야 돼요.
불상인 사건 당사자	지금 말씀하신 포괄일죄 이거에 대한 부분들.
구동명	그건 별도로 가야 돼요. 사업장 별도니까.
불상인 사건 당사자	아~

3

갑
제
4
호
증의
11

	예상 신문지, 이런 거 다 보내드립니다. 그거 보고 들어가서 답변하시는 데 아무 지장도 없을 겁니다. 또 뭐, 내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야기해주시면 돼요.	
불상인 사건 당사자	그리고 고발해서 경찰이 왔잖아요. 그때가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하더라고요. 절차가. 근데 그 경찰이 왔을 때 이런 수사나 저희 이런 현장에 있는 거를 다 뒤져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거기에 협조를 안 하면 현행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박태원	압수수색 영장이 없어도, 압수수색 영장이 없어도 현행범일 경우에는 그 현장에 있는 압수수색은 할 수는 있어요.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대단히 큰 그거라고 압수수색까지는 보통 경찰이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압수수색은 안 할라고 하고. 증거 확보하기 위해서 사진은 찍을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진은... 압수수색은 압수수색하고 사진 찍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 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사진 찍는 거는 영장 없이는 불법이라고 12) 15 18 13) 19 21 15 18 21	갑 제 4 호 증의 15
	생각해요. <u>현행범이라 하더라도. ‘이거 맹인들만 할 수 있게 하는 거 알고 전에도 우리 재판해봐서 알고 협회에서도 교육받아서 압니다. 내일 나가가지고 다 인정하는 진술할 겁니다. 오늘 막 손님 있고 하니까 오늘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아주 또라이 아니면은 경찰도 다 돌아갑니다.</u>	
불상인 사건 당사자	<u>그럼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그냥 인정을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네요?</u>	
박태원	<u>그렇죠. 원데 부인합니까?</u> 사업자등록 내고 마사지샵 하고 있는 거 뻔한데 거기서 내가 마사지 안 했다고 부인할 겁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불상인 사건 당사자	마사지를... <u>마사지샵이긴 하지만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 정도만 했다고 해도 문제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최근에는 좀 있거든요.</u>	

불상인 사건 당사자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지금.
불상인 사건 당사자	예. 예. 알면서도 봐주는 경우이긴 한데,
박태원	봐줬을 겁니다.
불상인 사건 당사자	그게 이제 그 사람들도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으니깐 그냥 넘어가는 케 이스가 있는 것 같고.
구동명	그래서 그거 땀에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경찰관들이 오잖아요. 오면 은 일단은 현황 사진을 찍을라고 그래요. 마사지하는 사진을. 그러니까 그걸 증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을 때 빼박이고. 그게 없을 때도 사업자만 보고,
불상인 사건 당사자	그렇죠. 우리도 그런 게 없을 경우에,
구동명	예. 손님이 없는 경우에 이제 애네들이 좀 당황을 해요. 그랬을 때는 이제 사업자 없고 뭐 하고 좀 그런 거만 적고 일단 가요. 그리고 조사받으러 나오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거 현행법상 어찌 됐건 위법이다. 니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이 거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이런 거 얘기하다가 보통 이렇게 검찰까지 올라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걸 그 사람이 경찰관이 봐줬잖아요? 그러면 또 이걸 찌른 이가 일반, 만약에 안마협회나 이런 데였으면 거기 서 안 됐어? 그럼 이제 보건소에다 찔러요. 그럼 또 보건소에서 나와요.

14)
6

16

갑
제
4 호
증의

불상인 사건 당사자	<u>변호사님 말씀은 그 정도 상황이 되면은 그냥 인정하고 내일 가서 인정 할 테니까 오늘은 그냥 조용히 가세요, 그게 낫다 이거죠?</u>
구동명	<u>깔끔하죠.</u>
박태원	예. 의견서 써서 보내주면 경찰도 야, 진짜 이거 문제 많네라는 거 인식 하거든요. 추가로 단속 나오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옥신각신 다투 고 그러는 거는 괜히 경찰하고 사이만 나빠지고. 또 원장님들도 피곤하 고.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15)
1

7

불상인 사건 당사자	검사 조사 단계에서도 불기소되는 케이스도 있었나요?
박태원	거의 없죠. 거의 없죠.
불상인 사건 당사자	최근에 저희도 있기는 있거든요. 불기소되는 케이스가.
불상인 사건 당사자	그러니까 약간 지금 구동명 원장님하고 저희 (...) 조금 그 고발 경찰 단 계에서 저희는 아예 자체를 요즘은 인정을 안 해요. 그냥 마사지를 한 게 아니라 저희는 힐링 그런 거라고 하면서 하니까 좀 더 빠져나가는 그런 게 더 많더라고요. 근데,
박태원	그건 무죄 판결 나오고 나서 그러고 있나요, 지금?
불상인 사건 당사자	그거랑 상관없이.
불상인	그전부터.

갑
제
4 호
증의
19

사건 당사자	
불상인 사건 당사자	예. 예. 그렇게 한번 해보고 그게 먹히면 좋은 거고 안 먹히면 이제 2단계로 가는 거고.
박태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구동명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냥 오면 바로 인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나면 괜히 관리사 선생님들 일하고 있는데 선생님들 사진까지 찍히면 그들도 같이 조사받아야 돼요. 피곤해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인정. 오케이. 내가 이거 불법인 거 인정. 근데 사진 같은 건 찍지 말아주세요. 고객들은 하니까 불편하지. 사진 찍지 말아달라고 거기서 인정하면은 그냥 안 찍어요.
	근데 앞에 그래도 나왔으니까 누군가한테 사인을 받아야 된다. 그럼 거기 우리 앞에 계시는 분이 카운터 선생님이니까 그냥 그분한테 사인받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러고 나갈게요 이렇게 통화를 해요 저는.
불상인 사건 당사자	그럼 그분도 매니저도 진술을 받으라고,
구동명	아뇨. 카운터는 그냥 사인해준 거뿐이기 때문에 관리사가 아니잖아요.
불상인 사건 당사자	아니어도 그 진술서에 사인이 들어가면 증인이 나중에 그런 참고인으로 해가지고 부르더라고요.
박태원	아, 지금 원장님 말씀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게 법리적으로 하면은 원장, 관리사, 카운터 전부 공범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진술서에 그게 쓰여졌으면 조사를 할라고 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u>진술서는 저만 쓰고 저만 들어가는 걸로 해달라, 이렇게 하면 그거 봐주는 경찰이 아주 많아요.</u>

16)

5

10

갑
제

4 호
증의

20

17)

18

21

사건 당사자	
박태원	대법원은 상당히 오래 심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하고 서로 눈치 보가면서.
불상인 사건 당사자	그럼 내년 연말 정도 될 수 있겠네요?
박태원	그래도 현재건 대법원이건 내년에는 결판나지 싶습니다. 아주 엄중한 시기에요. 우리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불상인 사건 당사자	그러면 저희가 고발 단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지금 그냥 변호사님한테 맡기면 그 기간 1년이고 2년 안에는 크게 경찰이 와도 상관이 없는 거네 요? 어차피.
박태원	그렇게 보시면 되지. 그러니까 추가로 와도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조사하게 됐을 때 그거까지 케어해드린다는 겁니다. 어차피 저희는 여기 다 흡수시켜버릴 거니까요.
불상인 사건 당사자	330만 원이 부가세는 별도인가요?
박태원	합쳐서요.
불상인 사건 당사자	합쳐서?
불상인 사건 당사자	혹시 그러면 제가 하는데 지금 벌금이 나왔어요. <u>저희가 그냥 앞에서 다 인정을 했었고. 저도. 그리고 지금 벌금 3백이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다</u>

갑
제
4
호
증의

22

21)
1

	<u>시 항소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u>
박태원	<u>지금 선임해갖고 하면 되죠.</u>
구동명	지금 선임해서 빨리해야 되는 거죠.
불상인 사건 당사자	근데 어차피 이거를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앞에 뭐 마사지를 했고 뭘 하 고 벌금까지,
박태원	어차피 우리 인정한 바탕으로 재판하잖아요.
구동명	인정한 거를 바탕으로 이거는 불법, 아니 나는 그렇게,
박태원	<u>인정하지만 법이 잘못된 거야, 이거로 가는 거잖아요.</u>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일반인들이라서 법을 잘 몰라갖고 (...) 했지만 <u>팩트는 인정하지만 법은 틀렸어</u> , 이거 아니야, <u>이거기 때문에 지</u> <u>금 하셔도 됩니다.</u> 대표님한테 추가 질문해주시고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불상인 여성	<u>수고하셨습니다.</u>

14

- 끝 -

갑
제
4 호
증의
23